

# 「대한간호」 100호 출간을 경하하며

田 山 草 (본회 중경회장)



「人生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라고 한 말은 우리 귀에 익숙한 교훈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대한간호를 두고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끼고 사랑으로 읽고 정성들여 발표하고 또한 우리들의 연구의 증빙 자료로서 귀하게 쓰이는 간호학계의 유일한 전문지가 어언 100호를 맞아 출간된다는 통지와 중경회장으로서 치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생각해보니 감회가 깊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간호와 나와는 30년간에 걸친 관계를 갖어 회교하게 됩니다.

「대한간호」 창간 당시에는 나는 청년 애독자로서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어 보려고 글자 하나 흘리지 않고 「대한간호」를 탐독하며 노력하던 시절이었으며 그다음 조금 자라서는 대한간호에서 원고 부탁받고 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여 부족하고 철없는 기사를 실어보려고 진정으로 열심으로 치너 작품을 쓰던 시절이 어제와 같습니다.

그후 대한간호 편집위원으로 선배님들과 함께 말석에 앉아 편집 계획도 하고 제언도 하며 참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했을 때 대학원 숙제인 「턴 케이퍼」를 쓰는데 꼭 필요하여 한국에서 대한간호를 우송해다가 참고문헌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대한간호지의 고마움과 고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한장한장을 넘기던 학구적인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또 편집위원장으로 으것이 앉아 회의를 진행하며 대한간호를 뜻대로 펴보려고 정력을 쏟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회장으로 피선되어 대한간호 발행인으로 전체적 책임을 지고 글자 하나 제제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오던 시절도 있었지요. 또한 대한간호 이 자체로 보더라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인재(필자)의 원고가 실리게 되면 호뜻하고 대견하며 그 기사에 더 관심을 갖고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귀한 원고를 실려 주시던 인재(필자)께서 다시는 필자로 모실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시기도 하는 동안에 대한간호는 어언 100호를 출간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것이며 지나간 것들은 모두 중요하고 귀한 문헌으로 우리 간호사협회에, 간호학계에 남을 것입니다. 인절은 가고 다시 오지 않아도 대한간호는 길이 우리 대한간호협회의 업적의 기록집으로써 역사로서 회원들의 학술 총서로서 또 예술지로서 우리 후예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회원과 회원, 간호학과 타학문, 간호전문직사회와 타사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학문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앞으로 변화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학문과 직업이 유익하고도 필요 불가결한 직업으로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매개해 주는 대한간호를 탐독하고 이에 대

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호응하느냐 아니하느냐에도 깊이 관여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간협신보가 발간되어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니 대한간호는 명실공히 학술전문지로서의 내용의 질과 양을 더욱 철저히 하여 회원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오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를 자신의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힘쓰는데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글을 투고해 주신 간호사업가, 간호교육자, 간호학자는 가고 없어도 그들의 예지는 대한간호를 통해 후예들 속에 길이 남아 새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 사업을 이 땅 위에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100호를 기념하는데 즈음하여 잊을 수 없는 것은 「대한간호」를 발간하도록 진취적 생각을 내시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출판하도록 이를 성공시킨 분들과 오늘날까지 이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는 필자로서 후원자로서 혹은 격려자로서 헌신 봉사하신 높은 뜻을 가지셨던 선배 여러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와 영광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더 위대한 발전과 공헌을 기대하며 회원 총력을 기울여 이것의 출간의 기쁨을 만세 반석 위에 튼튼히 올려 놓는 일이 이룩되기를 축원하면서 더 쓰고 싶은 붓을 놓습니다.

## 고운미소참간호 건강한복지사회